

‘집사부일체’ 은지원×이승기 케미 기대되네!



은지원, 나인우, 김동현(왼쪽부터)이 각 방송사의 주말 간판 예능프로그램에 ‘뉴페이스’로 투입됐다. 이들은 SBS ‘집사부일체’, KBS 2TV ‘1박2일’ 시즌4,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활약한다. 사진제공 | SBS·큐브엔터테인먼트·본브이엔티

각 방송사의 주말 간판 예능프로그램이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SBS ‘집사부일체’, KBS 2TV ‘1박2일’ 시즌4와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 등이 새 출연자를 영입하거나 방영 시간대를 옮겨가는 등 불맞이 개편 준비에 한창이다. 가수 은지원, 연기자 나인우, 종합격투기 선수 김동현이 이 같은 변화를 이끌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다.

●은지원…15년 인연 이승기와 재회

은지원은 17일부터 ‘집사부일체’에 고정 멤버로 출연한다. 앞서 “연기에 집중하겠다”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유수빈의 빈자리를 메운다. ‘사부’라 부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관련 경험을 듣고 배우는 프로그램에서 기존 멤버인 가

은지원 ‘집사부일체’ 하차한 유수빈 대신 고정으로 합류 나인우 ‘1박2일’ 허당미 매력…김동현 가족 ‘슈돌’ 출연

수 이승기, 방송인 양세형, 김동현과 호흡한다.

특히 이승기와 재회가 시청자의 기대를 높인다. 은지원과 이승기는 2007년 KBS 2TV ‘1박2일’ 시즌1, 2015년 tvN ‘신서유기’ 시즌1에 함께 출연해 프로그램 인기를 끌어올렸다. 이에 오랜 ‘절친’인 두 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담긴 ‘집사부일체’ 예고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제작진은 은지원이 합류한 이후에도 연예인 게스트를 매주 초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나인우·김동현…반전 매력 아이콘

‘1박2일’ 시즌4에서는 2월 합류한 나인우가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시즌4의 방글이 PD가 최근 연출자 자리를 내놓으면서 프로그램 안팎으로 뒤숭숭해진 분위기를 단박에 정리할 태세다. 2013년 데뷔 이후 예능프로그램에 첫 출연한 그가 그동안 선보인 쉼튼한 이미지와 다른 ‘허당미’로 시청자의 시선을 모아온 힘이다. 그가 합류한 이후 시청률도 10%대(닐슨코리아)를 유지해왔다. KBS는 현재 후임 연출자를 고심하며 프로그램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김동현은 22일부터 아들과 딸인 단우(4)·연우(2) 남매와 함께 ‘슈돌’에 합류한다. 앞서 tvN ‘대탈출’, JTBC ‘몽처야 찬다’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해온 그가 가족과 함께 방송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아버로서 일상과 함께 자신과 꼭 빼달아 온라인에서는 이미 ‘유명인사’가 된 단우·연우 남매의 등장도 시청자 호기심이 쏠리고 있다.

‘슈돌’은 22일부터 2013년 이후 줄곧 자리를 지킨 일요일에서 금요일로 방영 시간을 옮겨간다. “주말의 의미가 확대된 최근 흐름”에 따른 결과다. 제작진은 9년 만에 바뀌는 새로운 방영 시간을 알리기는 데 김동현 가족의 합류 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3034@donga.com

One pick

업 앤 다운

미화 7만 달러 갖고 나가다 적발 MC몽 “실수와 무지로 인한 잘못”



MC몽

“실수와 무지”

가수 MC몽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이번엔 ‘매를 먼저 맞겠다’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상세히 밝히며 해명했지만,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MC몽이 지난달 신고하지 않은 미화 7만 달러(8600만 원)를 갖고 출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달 1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은 미화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니고 입출국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MC몽은 이와 관련해 이날 SNS를 통해 “3주 전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려 했다”며 “비행기를 급히 타는 과정에서 실수로 미신고했다”고 썼다. 이어 “신고하려고 가져온 영수증까지 보여줬지만 다시 신고할 기회는 없었다”면서 “제 실수와 무지함을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앞서 2010년 고의 발치 등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윤석열 당선인 ‘유 퀴즈’ 출연…20일 방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다. 14일 tvN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전날 오후 프로그램 녹화를 마쳤고, 촬영분은 20일 방송된다. 대통령 혹은 당선인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건 2003년 MBC ‘노경표’에 출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SBS ‘집사부일체’,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시사저널에서는 “프로그램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신비한 동물’ 개봉 첫날 관객 8만6808명 동원

‘해리포터’의 스피노프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텀블도어의 비밀’이 2022년 개봉 외화 최고 오프닝을 세웠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3일 개봉한 ‘신비한 동물들과 텀블도어의 비밀’이 8만6808명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2월 17일 개봉해 7만 278명을 동원하며 종전 올해 외화 최고 오프닝을 세웠던 ‘언차티드’를 넘었다. 머글(인간)과 전장을 선포한 강력한 마법사 그린델발트와 이를 막기 위한 텀블도어 군대의 대결을 그린 판타지 영화로 에디 레드메인, 주드로, 매즈 미켈슨 등이 출연한다.

더 보이즈, 내달 29일 LA 시작으로 월드투어

그룹 더 보이즈가 첫 월드투어 ‘더 보이즈 월드투어: 더 비 존’을 개최한다. 14일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5월 29일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시카고, 뉴욕 등 미국 주요 6개 도시에서 공연한다. 영국 런던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 유럽 국가 4개 도시에서도 현지 팬들을 만난다. 8월 5~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 콘서트 투어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더 보이즈는 “세계 각지의 팬들에게 에너지 가득 찬 무대를 아낌없이 보여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20대 여성 취향 저격…푹푹한 ‘대만 청춘 로맨스’가 대세

대만 로맨스영화 재개봉 관객 발길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리메이크 젊은 여성들 니즈 공략해 팬덤 확보

확실한 팬덤과 관객층을 형성하며 국내에서 하나의 장르처럼 자리를 굳힌 대만 청춘 로맨스물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표 작품들의 리메이크 소식이 이어지면서 팬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국내 리메이크 활발

대표적인 대만 청춘 로맨스 드라마 ‘상견니’는 ‘너의 시간 속으로’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한국에서 리메이크된다. 안효섭, 전여빈, 강훈 등이 문

친다.

세상을 떠난 남자친구를 잊지 못한 주인공이 과거로 날아가 그와 똑같은 남학생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원작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에서 무려 10억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는 ‘상견니’에 미친 자들’, 일명 ‘상친자’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8월에는 전 세계 최초로 극장 개봉까지 했다.

국내 대만 로맨스물 붐의 시초로 꼽히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도 한국에서 재탄생한다. 2008년 개봉작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주경륜을 스태프로 올려놓으며 OST 열기까지 일궈냈다.

리메이크작 주연은 도경수와 원진아가 맡는다. 도경수가 피아노 천재, 원진아가 비밀을 간직한 음대생을 연기한다. 영

화 ‘덕혜옹주’의 각본을 쓰고 지난해 영화 ‘내일의 기억’을 선보인 서유민 감독이 연출한다.

●20대 여성의 취향을 저격하라

대만 청춘 로맨스 영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공 열어붙은 극장에서 꾸준히 재·개봉돼 관객의 발길을 끌었다.

‘만년 이 지나도’, ‘여름 날 우리’, ‘해길갑’, ‘나의 청춘은 너의 것’ 등이 비교적 적은 상영관에서 개봉해 1만 명 이상 관객을 모았다. 2012년 흥행한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는 2016년에 이어 지난해 재개봉돼 국내 관객을 만났으며, 왕대륙의 대표작 ‘나의 소녀시대’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대만 청춘 로맨스의 고전으로 꼽히는 2002년작 ‘남색대문’도 지



‘말할 수 없는 비밀’ 원진아·도경수

난해 20년 만에 국내에서 정식 개봉해 눈길을 끌었다.

대만 청춘 로맨스물 인기의 중심에는 20대 여성 관객층이 있다. 남성 중심적 이야기가 대부분인 한국영화와는 대조적으로 푹푹한 청춘의 로맨스로 젊은 여성 관객층의 ‘니즈’를 제대로 공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화 배급사의 한 관계자는 “관객의 대부분인 20대 여성들의 재관람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윤두준, 음악 활동에 연기까지…바쁘다 바빠

하이라이트 새 앨범 음악방송 1위 주연 드라마 ‘구필수…’ 내달 선풍 영화 ‘정직한 후보2’도 개봉 앞둔

그들 하이라이트의 멤버이자 배우 윤두준(33)이 무대와 연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 최근 오랜만에 완전체의 일원으로 돌아와 그룹을 이끌며 팬들에게 반가움을 안기는 그가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드는 연기 활동으로도 대표 연기들의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두준은 지난달 21일 하이라이트의 정규 앨범 ‘데이드림’을 발표하며 5년 만에 무대에 섰다.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 컴백 활동이라는 점에서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다. 특히 음악 순위프로그램에서는 쟁쟁한 후배들을 제치고 1위까지 차지해 14년 차 ‘중견돌’의 위엄을 과시하기도 했다.

tvN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유튜브 콘텐츠 ‘할명수’ 등에도 출연하며 남다른 예능감각을 자랑했다. 13일 KBS 예능 프로그램 ‘주점의 풍년’ 녹화에서는 팬들과 직접 만나기도 했다.

드라마 ‘식사를 합시다’, ‘퐁당퐁당 LO



KT스튜디오지니 ‘구필수는 없다’ 윤두준

VE’ 등을 통해 꾸준히 연기 영역을 다져온 그는 본격적인 연기 활동도 시작한다. 주연으로 나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KT스튜디오지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구필수는 없다’를 5월 4일 선보인다. 가장자자

영업자들의 ‘짠내’ 나는 이야기를 그리는 휴먼 코미디물에서 아이템은 넘쳐나지만 돈이 없어 고민인 청년 사업가 역을 맡는다. 또 다른 주연 박도원과 함께 시너지를 노린다.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짓말쟁이 국회의원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낸 2020년 영화 ‘정직한 후보’의 속편 ‘정직한 후보2’를 통해서도 극장 관객과도 만난다. 라미란, 김부열, 윤경호 등 전편의 멤버들과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7월 방송 예정인 MBC 새 드라마 ‘일당 백집사’에도 출연한다. 죽은 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례지도사 역을 맡아 헤리와 함께 심부름센터 일당백을 운영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